

## 삼성전자 평택엔젤스 후원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함께해서 더 행복한 연주회 '크리스마스의 기적'



1



2

1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 '꿈의 오케스트라' 기금 전달식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삼성전자 평택엔젤스가 후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제7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열렸다.

평택엔젤스는 2018년 3월부터 '평택단지 반도체 미래산업의 씨앗, 미래를 심다'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봉사단체다.

평택엔젤스가 모은 기금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되고, '꿈의 오케스트라' 외 평택 아동보육 시설의 '책향기 가득한 과학탐구교실' 운영에도 사용된다.

이번 공연에서 임직원 봉사자들은 관객들에게 리플렛을 직접 나눠 주며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봉사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풍기는 액세서리로 어린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노상훈 지휘자는 "평택엔젤스의 후원 기금은 대체로 아이들 교육비에 사용된다"고 했다.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인성을 가르치는 과정에 평택엔젤스의 사랑과 나눔이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지휘자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서로의 마음을 나뉘는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1부는 클래식 공연으로 시벨리우스,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이 연주됐다. 단원 70여명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청중은 귀를 기울였다. 이번 공연에는 평택시 정장선 시장, 평택교육지원청 양미

자 교육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오케스트라의 한 청소년 단원은 "단원들 모두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합주 연습에 참여했고, 신입 단원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며 "오케스트라의 열정과 수고가 관객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부는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됐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청소년 댄스팀 '마틴'은 수준급 실력을 선보였다. 이어 특별공연으로 삼성전자 김재열 상무의 색소폰 협연이 열렸다.

김 상무는 "처음 공연했을 때보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꿈의 오케스트라 후원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온 평택사업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직원 보컬 동아리의 공연도 이어졌다. 보컬 동아리는 서로 호흡을 맞춰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3부는 퓨전 앙상블 '선'과의 협연으로 진행됐으며, 동요 '노을'이 흘러나오자 어린이 관객들은 큰소리로 따라 불렀다. 끝으로 퓨전 앙상블 '선'과 함께 이윤아 태평소 연주자와 역말 청소년연희단, '꿈의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

SAMSUNG

Portable SSD T7 Touch



# 놀라운 속도의 외장 드라이브

## 포터블 SSD T7 Touch

이제 놀라운 속도는 기본, 보안까지 확실하게 지키세요.

T7 Touch는 대용량 데이터도 순식간에 처리해주며, 당신의 지문에만 반응하는 강력한 보안을 갖췄습니다. 모션 LED로 실시간 드라이브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